

## 국어 읽기 3. 추론하기 아이다:

이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 경대 서랍 속의 입술 연지 토막에 눈독을 들인 것은 서울에서 수학 선생이 새로 부임해 온 뒤였다.

어느 날 청소 당번이 되어 펌프물을 걷고 있노라니, 가까운 강당 안에서 <솔베이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 숨씨는 그냥 능숙하다기보다 음률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아로새겨 누군가를 향해 노래를 바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강당 문 앞까지 이끌려 간 나는 발꿈치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적막한 빈 강당 안에서 홀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수학 선생이었다. 그의 몸은 너무나 깊이 건반 위로 숙여져 있어, 당장이라도 연인을 향해 몸을 던져 무릎을 꿇을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수학 선생이 노래를 바치려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처럼 느껴졌다. 펌프로 되돌아가려던 나는 유리창에다 넌 지시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았다. 얼굴이 붉게 보인 것은 유리창에 비친 노을 탓만은 아니었다.

내 사춘기의 ㉠ 가슴앓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연지 토막을 꺼내었다. 다 쓰고 버린 것이었으므로 새끼 손가락으로 속을 후벼파야 했다. 손가락 끝에 겨우 조금 묻어 나온 진홍색 연지로 입술을 아프도록 문질러 보았지만 연모의 정으로 애타는 내 마음에는 아무래도 흡족하지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롱 서랍에는 내가 눈독을 들어 온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온 오빠가 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단풍 빛깔의 셔츠였다. 셔츠에 달린 상표를 조심스럽게 뜯어서 보관해 놓고(왜냐하면 나중에 감쪽같이 도로 제자리에 넣어 두어야 했으므로) 나는 교복 윗도리를 벗어 던진 다음, 그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저 그를 생각하며 혼자서 성장을 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던 나는 막상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다.

수학 선생이 퇴근했을 만한 시각에 나는 집을 나섰다. 날은 안성맞춤으로 어둑어둑했다. 그런데 골목길을 채 다 벗어나기도 전에 오빠와 마주치고 말았다.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길 한복판에서 배를 움켜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재빨리 웃음을 거두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 나는 오빠에게 달려들어 목이라도 조일 뻔했다.

그런데 그가 폭소를 터뜨린 이유는 조숙한 내 짝사랑을 눈치챘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한껏 뽐내며 차려 입은 붉은 셔츠는 속내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속내의 바람으로 수학 선생을 찾아 나선 것이다. 얼마나 아찔했던지 그에게 품었던 연모의 정마저 싹 가시는 듯했다 거기다 수학 선생이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안경잡이 화학 선생이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연지 토막만은 사랑에 눈뜬 내 마음을 화사하게 치장시켜 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 서영은, '진홍빛 입술연지' -

1. 다음 중 ㉠ '가슴앓이'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여드름
- ② 심장병
- ③ 반항심
- ④ 짝사랑

2. ㉡의 행동에 들어 있는 글쓴이의 감정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질투
- ② 불안함
- ③ 당황함
- ④ 실망감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사진이 보이십니까? 차례상에 피자가 올라와 있고 또 치킨이 올라와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네 명절의 신평속도인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 차례상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고인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전을 무척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전통이라는 이유로 전을 차례상에 올리고, 국을 못 먹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남들이 올리니까 따라서 올리는 것보다는 고인이 생전 즐겨 먹던 음식들을 올리는 것이 차례의 본질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3. 글쓴이가 사진과 글을 같이 제시한 의도로 알맞은 것은?

- ① 주장이 강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 ② 독자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여 차례를 경건히 지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 ③ 변화한 차례상을 직접 보여 주어 주장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 ④ 고인이 생전 즐기던 음식을 올리자는 글의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4. 윗글에 <보기>와 같은 답글이 달렸다고 할 때, 윗글과 <보기>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답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차례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 가는 행위이고, 차례에 올리는 음식도 다 뜻이 있고 전통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차례를 안 지내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피자, 치킨 등은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음식인데 그것으로 차례를 지내면 정성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① 두 글 모두 차례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 ② 두 글 모두 치킨 등이 차례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다.
- ③ 윗글은 고인을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만 있으면 차례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보기>는 정성을 들여 전통과 형식을 따르는 것도 차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 ④ 윗글은 차례에 올리는 음식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기>는 차례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